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 관한 기독교적 고찰

한 현 희*

국문초록

고통에 처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종종 발견되는 현상이나, 분노를 표현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미해결 될 때, 사람들은 영적·심리적·신체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중시하는 기독교 전통에서 분노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소통을 어렵게 만든다.

본 논문은 Mark P. Cosgrove, Andrew D. Lester, Robert D. Jones과 David Powlison 간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 대한 이견을 다루고 있으며 이들의 입장을 기술, 비교하여 기독교 상담자들이 분노하는 내담자를 어떻게 돌보야 할지에 관심을 두고 연구되었다. 기술한 학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기독교 상담자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로 '죄인으로서 인간', '고난의 재구성'을 도출하였다. 상담자는 죄인인 내담자의 분노가 애통의 마음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내담자가 고난의 의미를 재구성 할 수 있도록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과 동기를 내려놓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논의가 가진 한계를 기술하였고 구체적 적용을 위한 사례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분노, 하나님을 향한 분노, 죄인, 고난, 기독교 상담

• 논문 투고일: 2020년 9월 29일

• 논문 수정일: 2020년 10월 31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11월 5일

*헤세드상담센터 상담사

I. 여는 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상담하다 보면 종종 내담자의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발견하게 된다. 분노의 크기와 이유는 내담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러한 분노는 내담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회의,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그리스도인에게 표현하기 어려운 주제 중 하나다. 왜냐하면 기독교 전통에서 그것은 믿음 없거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Cosgrove, 1995; Exline & Martin, 2005),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Lester, 1983). 특히 신앙적으로 헌신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Exline & Martin, 2005).

하나님을 향한 해결되지 않은 분노는 사람에게 신체적·심리적·영적으로 영향을 준다. 미해결된 분노는 환자의 신체 회복률을 떨어뜨리며(Pargament et al., 2001), 우울, 불안, 삶의 만족 및 적응에 어려움을 준다(Exline, Yali & Lobel, 1999; Exline et al., 2011; Pargament et al., 2003).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거나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서적 무신론자(emotional atheism)'로 살아가도록 한다(Exline & Martin, 2005; Lee & Cho, 2016).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중시하는 기독교 전통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상담자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분노는 불신을 야기하며 문제해결에 방해가 되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게 만든다(류창현, 2009; 박경하, 2008). 결국 미해결된 분노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소통을 어렵게 만든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신앙의 여정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종 발견되는 현상으로(박경하, 2008; Lee & Cho, 2016), 이를 잘 극복하면 더욱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된다(Beck, 2007; Lester, 2016). 또한 이 분노

를 통해 사람 마음에 가진 이상 즉,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Jones, 1996; Lester, 2016; Powlison, 2016b).

그러나 기독교 상담 내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 관한 다른 입장과 의견이 존재한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성적 감정이며,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죄 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입장과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중성적이지 않으며 죄 된 행동이라는 입장이 있다. 전자의 접근을 취하는 대표적인 이론가는 기독교 심리학자 Mark P. Cosgrove와 목회 상담학자인 Andrew D. Lester이며, 후자의 접근을 취하는 이론가는 성경적 상담학자인 Robert D. Jones과 David Powlison이다.

본 논문은 이견을 보인 이론가의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 관한 주장을 살펴보고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며, 이를 기독교적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신학적 주제 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 상담자로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 기독교적 관점을 고찰 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 관한 기독교적 입장

1) Mark P. Cosgrove 입장

(1) 분노

Cosgrove는 그의 저서 *Counseling for Anger*(Cosgrove, 1995: 33)에서 “분노란 모든 사람이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하나의 강렬

한 정서적 반응”으로 보았다. 그는 분노를 생리적·인식적·행동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서로 생각하였다.

분노에 있어서 생리적 반응이란 낮은 상황과 부담을 주는 일을 맞닥뜨리면서 체내에 아드레날린과 노라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어 심장 박동, 호흡, 혈압에 변화를 불러 일으켜 사람으로 하여금 화가 갖는 일반적 흥분상태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Cosgrove, 1995: 40). 그러나 그는 일반적으로 생리적 각성 자체만으로 분노의 감정은 일어나지 않으며 생리적 각성을 불러일으킨 사건을 해석하고 행동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인식적 반응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사람들의 인식적 반응 안에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의미, 동기, 고통과 고난의 목적에 대한 철학적인 신념 등이 포함된다(Cosgrove, 1995: 41-42).

Cosgrove(1995)는 사람들이 분노를 강렬한 정서로 보는 이유로 분노가 가진 행동적 요소 때문이라 생각하였다. 분노는 종종 말 혹은 행동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분노를 주는 대상에 대한 욕설, 살인, 헐담, 폭력 등의 모습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동 등의 수동공격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분노의 생리적·인식적·행동적 요소로 인해 Cosgrove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죄가 될 수 있으나 분노의 느낌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보았다.

(2) 하나님을 향한 분노

Cosgrove(1995)는 욥, 요나, 엘리야의 성경 인물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분노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분노 표현을 금하거나 정죄하신 적이 없으며,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정직하게 부르짖을 것을 격려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보았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인간이 생각하는 신념이 도전을

받고 그로 인한 혼란스러움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 마음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sgrove는 그들의 분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분노의 표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를 찾고 그의 뜻에 순복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건설적으로 적절하게 되지 못한다. 단순히 하나님께 분노를 표현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현하는 동기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려는 것이어야만 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감정을 이해하시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그에게로 이끄시기를 원한다(Cosgrove, 1995: 202-203).

Cosgrove은 상담자들이 고통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상담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상처와 분노를 표현하도록 도와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 대하여 분노의 감정을 죄라 규정하거나 신학적인 답변으로 설득하기보다, 고통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였다.

Cosgrove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생리적 · 인식적 · 행동적 요소로 나누면서 분노라는 느낌 자체는 죄가 아니며, 그것을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있어서 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 표출은 죄 된 행동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를 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2) Andrew D. Lester 입장

(1) 분노

목회 상담학자인 Lester는 그의 저서 *The Angry Christian*에서 분노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는 신경과학, 구성주의 내러티브 이론, 성서 이야기, 역사신학 영역 등을 토대로 분노의 목회신학을 제안하였는데 분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분노라는 것은 자아에 대한 위협을 인지하여 반응하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각성 패턴이며 공격 혹은 방어욕구로 특징 지워진다(Lester, 2016: 127)

그는 기독교 전통에서 지배적 이야기로 내려온 ‘분노=죄’라는 신학에서 벗어나, 분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 안에 체화된 존재의 일부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창세기 4장 5-7절의 구절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분노가 죄 짓는 일이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리니 죄를 다스리라 경고하셨다고 주장하였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분노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 쉽다는 것을 아셨고 이러한 차원에서 분노는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분노는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꼭 제거해야 할 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Lester, 2016).

Lester(2016)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분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셨으며 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주장하였다. 분노가 일어나도록 허용하고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노를 통해 인간에게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기저의 이야기를 탐색하며 이 이야기가 복음과 일치하는지 분별하고 인간의 삶이 예수님이 보여준 삶과 일관되는지 평가하라고 제안하였다.

Lester(2016)는 분노가 많은 경우, 끊임없는 잔소리, 비아냥거림과 같은 비우호적 유머, 폭력, 학대 등과 같은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자신과 타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분노 안에 파괴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 용기, 친밀감, 자아 회복의 기능을 도와주는 순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분노가 정서적·영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우상 탐지기’로 인간 영적 순례기에 협력자로서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불의와 심각한 고통, 억압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공황의 분노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Lester는 분노를 창의적으로 다룸으로써 사람이 분노 경험을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그는 자신의 분노를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위협적 이야기를 위협을 방지하는 대안적 이야기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요나의 사례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넉쿨을 마르게 함으로써 니느웨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요나의 생각을 도전하셨듯이(요 4:6-11), 분노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장과 변화의 이야기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ester, 2016).

(2) 하나님을 향한 분노

Lester(1983)는 분노의 감정을 인간 속성의 일부로 보았다. 그는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처럼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오히려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신자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막으며 피상적인 관계로 흐른다고 보았다(Lester, 2006).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믿음의 내러티브, 특히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내러티브가 위협받음으로 생긴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 믿음의 내러티브는 인간의 신뢰질에 보관되

어 있다고 보았다(Lester, 2006). 그는 사람이 겪는 고난 및 재앙에 대해서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이미지와 믿음의 내러티브가 충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하나님에게 분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다루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해로 이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상담자들이 고난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도록 도운 후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등의 신학적 이야기들을 내담자와 나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ester, 2006).

또한 Lester(2006: 67-68)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분노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죄악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분노를 일으키는 내러티브가 무엇인지 점검함으로써 사람이 가진 역기능적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표현할 수 없게 만드는 내담자들의 생각과 역기능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직면하도록 돕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도록 안내하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정직하게 분노를 표현할 수 있도록 욥기, 예레미야, 예수님과 같은 인물을 내담자에게 소개하거나 기도, 혹은 글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도록 돕고자 하였다.

Lester는 신경과학, 구성주의 내러티브 이론, 성서 이야기, 역사신학 영역 등의 학문적 결과물을 통해서 분노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제시하였다. 그는 분노의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에 분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죄 된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분노 표

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주장함으로 Cosgrove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Robert D. Jones 입장

(1) 분노

성경적 상담학자인 Jones(1996: 15)는 “분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지각함으로써 생기는 도덕적 판단에서 나오는 전인적(whole-personed)이며 부정적 반응”으로 보았다. 즉, 그는 분노를 신념과 동기, 정서가 포함되지 않는 단순한 감정으로 볼 수 없으며 도덕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분노 안에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고소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하나님 방식에 악의가 있다고 이해되는 것이므로 잘못된 행동으로 보았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기에 분노한다고 보았다(Jones, 1996).

(2) 하나님을 향한 분노

Jones(1996)은 그의 소논문 *Anger against God*에서 Cosgrove가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정직하게 부르짖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Cosgrove는 그의 책 *Counseling for Anger*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큰 고난의 때에 그를 향한 분노의 표현을 금하시거나 정죄하신 적은 없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뇌에 빠졌을 때 정직하게 부르짖는 것을 격려 하신다(Cosgrove, 1996: 15).

라고 주장하였으나 Jones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죄이며, 하나님께 분노를 표현하기보다는 시편과 같이 탄원의 형태로 부르짖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Jones는 성경 속 가인과 요나의 분노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그는 가인의 분노(창 4:7)가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죄 된 동기와 신념에서 출발한 분노로 보았다. 가인이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 거절당하자 분노하게 되어, 시기심에 동생은 죽이게 되었다고 Jones는 설명하였다(Jones, 1996). 또한, Jones(1996)는 요나서 4장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요나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승인하지 않으셨으며, Cosgrove가 주장한 요나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지 않았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Jones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과 목소리를 갖는 것을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Calvin의 욕기 설교를 인용하며 옳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Calvin은 자신의 욕기 설교에서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 반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Jones, 1996: 17-18). 그러므로 Jones는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한 죄 된 분노의 해결책은 자신의 믿음 없음과 반역에 대한 지속적 회개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고난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시편과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오듯이 거룩한 탄원(holy lamenting)의 형태로 믿음 안에서 표현하라 제시하고 있다. Jones(1996: 20)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Three A's를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당신의 생각과 감정, 의심과 질문, 기쁨과 슬픔, 신음과 탄식을 표현한다(Acknowledge honestly).

둘째, 성경적 관점으로 생각과 감정을 분석한다(Analyze biblically). 자신의 신념과 동기를 분류하고 하나님에 대항하고자 한 분노를 고백한

다. 그리고 분노를 터뜨리기보다는 회개하도록 한다.

셋째, 비록 당신의 욕구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한다(Act obediently).

Jones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 있는 도덕적 정서로 보았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사람에게 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무차별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탄원의 방식으로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David Powlison 입장

(1) 분노

Powlison(2016b)은 분노를 한마디로 정의하기에 복잡한 개념이지만 본질상 판단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는 분노를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당신이 내리는 가치판단과 그에 따른 태도”로 정의하였다(Powlison, 2016b: 89). 또한 분노는 주로 중요한 일에 있어서 도덕적 태도를 보이기에 도덕적인 감정 혹은 도덕적 정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Powlison, 2016b: 82). 이런 점에서 Powlison은 인간을 가치 판단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주체로 보았고 그 주체가 분노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생각하였다. 즉, 그는 사람이 분노할 때 사람의 일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 인격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인간 스스로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분노는 신체적으로는 다양한 생리적 현상을 보이며 감정적으로 고통, 곤란, 증오와 같은 불쾌한 감정을 보인다. 또한 판단하는 사고방식을 통해 행동으로 표출되며, 그 분노 안에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는 동기가 숨어 있다. 사람 안에 있는 동기란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핵심가치와

현신의 대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잣대이며, 이 동기로 인해 사람의 감정,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면 타인을 대하는 방법도 달라진다(김준수, 2012; Welch, 2003).

하지만 Powlison(2016b)도 분노는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며, 분노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분노를 통해 사람들도 선하게 분노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선한 분노란 자비에 기초한 건설적인 불만으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며, 고난과 악한 상황에서도 희생자의 권리를 수호하고 도와주면서 선으로 이끈다. 이러한 분노는 인내, 용서하는 맘, 하나님의 친절함을 닮기 그리고 건전한 갈등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2) 하나님을 향한 분노

Powlison는 그의 소논문 *Anger at God*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결코 중성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 때문이다. 즉, 그는 '나는 크고 하나님은 작다'는 자기 위주의 고집 센 마음(commitment of the self-willed heart)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Powlison, 2016a: 44).

Powlison(2016a)은 하나님을 향해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갑작스럽게 재산을 탕진할 때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분노한다. 인간의 이해와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함으로써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숭배하고자 하는 동기로 차 있다. 이런 점에서 Powlison(2016a: 46-47)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다루는 세속적인 상담자들의 다음과 같은 충고를

반박하였다.

첫째, 세속적 상담자들은 분노 그 자체는 선하지도 나쁘지도 않음으로 하나님에게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Powlison는 사실상 대부분의 분노는 선하거나 나쁘거나 혹은 혼합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하나님이 부당하게 행하셨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에 선하지 않다고 보았다.

둘째, 세속적 상담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고통을 멈출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이 갖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owlison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으로부터 면제를 약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고난이 사용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셋째, 세속적 상담자는 하나님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랑을 갖고 있기에 그분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Powlison는 하나님과 정직한 관계를 위해 분노의 죄 성을 분별하지 못한 채 표출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바라는 건설적인 분노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넷째, 세속적 상담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실망시킨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용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Powlison는 이러한 주장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며,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다룰 때,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Powlison이 주장하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갖고 있는 내담자를 다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잘못된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서 분노를 표현하기 보다는 사람이 무엇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가를 찾고 그 죄에 대해서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람의 한정된 해석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무엇을 더 사랑하였고

숭배했는가를 살펴보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현재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Powlison, 2016c).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개인의 깊은 성장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주장하였다.

Powlison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Jones의 주장과 동일하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죄 된 속성을 포함한 도덕적 정서이며 인간의 전인적 태도가 포함된 태도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해결하면서 스스로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분노하는지를 살펴보라고 권면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드러내기보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각 입장에 대한 평가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바라보는 4명의 기독교 상담학자들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주장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에 자신의 이해를 넘어선 때로는 부당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회의, 낙담, 실망, 분노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수 있다. 그러므로 4명의 학자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진솔하게 표현하는 데 동의한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가진 하나님에 관한 생각과 신념이 흔들릴 때 발생한다. 사람들이 가진 신념과 생각, 하나님의 이미지들이 위협받았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분노함으로써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과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된

다. 위의 학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잘 다룬다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과 가치를 파악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하리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분노에 대한 시각, 분노 표출에 대해서 4명의 학자 간에 이견을 보인다. Cosgrove와 Lester는 분노를 생리적·인식적·행동적 요소로 분류하여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선한지도 악하지도 않은 감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데 있어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그들도 분노를 인식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선하게 표출되거나 악하게 표출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Jones과 Powlison은 분노라는 감정은 사람의 일부가 포함된 것이 아닌 사람의 가치, 신념, 태도 등이 총망라한 전인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는 가치판단을 가진 도덕적 정서로 보았다. 그러므로 Jones과 Powlison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표출하는 분노는 오히려 하나님께 죄 된 행동을 부추기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생각하였다.

분노에 사람의 일부 혹은 전인이 포함되었다는 각각의 주장은 결국 분노라는 감정에 사람이 가진 책임이 어디까지이며,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죄로 보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분노에 사람의 일부가 참여한다는 입장은 분노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분노를 사람의 전인이 포함된 태도라고 보는 Jones과 Powlison의 주장에는 분노라는 정서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죄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Jones과 Powlison은 하나님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렇다면 한쪽의 입장은 틀리고 다른 쪽의 입장은 옳은 것인가?

본 논문은 각각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다. 오히려 서로 다른 견해 속에서 기독교 상담자가 고난에 처해 하나님께 분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상담하고 돌보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각 상담학자들의 입장에서 공통으로 중요하게 보는 주제들을 도출하여,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내담자들을 돕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이론가의 주장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상담과 돌봄에 유익한 주제 2가지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내담자는 고난 가운데 몸부림을 치고 있는 죄인이라는 점이다. 인간은 에덴동산의 사건 이후로 타락된 죄 성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탓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표출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일으키게 한 고난의 문제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분노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즉 고통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Exline & Martin, 2005; Lee & Cho, 2016).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가는가가 결정된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고찰하고자 한다.

2.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 관한 기독교적 고찰

1) 죄인 된 존재로서 인간

기독교 상담이 다른 일반상담과 다른 점은 인간을 죄인으로 본다는 점이다(이관직, 2016; 정정숙, 2002; McMinn, 2011).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창 1:26~27).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

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계속 부패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Hoekma, 1990: 194). 그러므로 죄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 상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Allender과 Longman III(2011)은 많은 이론가가 감정을 도덕적 중립 상태로 두고 판단을 보류하는 것은 부정적 감정이 인간 마음속의 어두움을 드러내기 때문이며,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았다.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바라는 우상이나 만족을 찾으려는 죄 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Allender과 Longman III은 인간의 내면에서 표출되는 감정 역시 타락했다고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가장 깊은 뿌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자기 권리의 당위성'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심정연, 2019: 333). 타락한 세계 속에 사는 죄인 된 인간은 종종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분노를 죄 된 행동인가 아닌가를 구분 짓기보다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내담자의 연약함에 함께 울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정직하게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욥의 친구들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다(욥 1:1). 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고난을 경험하였고 재산과 자식, 건강을 잃었다. 욥의 세 친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 왔다. 그들은 욥의 모습을 보며 울었고 칠일 밤낮을 그와 함께 있었다(욥 2:12-13).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자, 친구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파편화된 진리들을 사용하여 욥의 고통이 그의 죄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다(Keller, 2019). 그들도 욥과 마찬가지로 욥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성급히 해석하고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고난에 처한 사람에게 그 원인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욕의 분노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억눌렀다(박경하, 2008),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친구들은 욕의 분노를 억제하는 대신 욕과 함께 애통하며 울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이다. 성경은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하였다(마 5:4).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느끼는 내담자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애통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그들의 고통을 표현 할 수 있어야 한다. 김규보(2019: 90)는 애통을 고통 중에 경험하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토해내는 방편이며, 진솔한 자기감정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애통은 하나님의 위로와 더불어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내포하기도 한다(장동진, 2018; Pink, 2015).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하심을 기대하는 애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상담자도 내담자의 마음을 공감하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내담자들을 대해야 한다.

2) 고난

(1) 고난의 역설

성경의 많은 이야기는 인간의 고난사를 담고 있다. 그리고 고난은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Tripp는 고난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고난은 어떤 식으로든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기 마련이다.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일 때도 있고 느닷없이 기습해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에게 고난을 초래하는 불완전한 사람이며, 우리의 현주소인 이 타락한 세상의 불행을 온전히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Tripp, 2019: 32).

즉 고난에 대한 바른 시각은 고난 자체가 타락한 질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으며 인간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김영희, 2010; Carson, 2017; Tripp, 2019). 고난은 인간에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소외되고 거절되는 경험을 통해 섭섭함, 답답함, 억울함,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 세상에 대한 분노, 버림받았다는 자기 연민, 자존감의 위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킨다(김영희, 2010: 220-221).

그러나 역설적으로 고난은 다음과 같은 유익을 준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며, 고난 속 인생의 의미와 그 안에서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한다(김영희, 2010; Tripp, 2019).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개념은 자신에 대한 개념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고난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장 및 성숙하게 해주며 이 한계 상황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김영희, 2010). 결국 고난은 인간을 강인하게 단련시키며 삶, 인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넓고 깊은 이해가 생기도록 도와주며, 인간의 삶에서 참된 생각과 욕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

(2) 고난의 재구성

고난은 재난, 상처, 사별, 가정폭력, 신체적 질병으로 비롯된 고통 그리고 수해, 전염성 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고난이 지속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게 된다. 의심과 회개가 거듭될수록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경험하게 된다.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겪는다. 또 코로나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 한다.

그러나 Tripp(2019)는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고난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현재 일어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일을 대하는 방식으로 고난을 겪게 된다고 보았다(Tripp, 2019: 35). 많은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정적인 감정을 겪게 되는 이유는 각자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믿음의 내러티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신념과 동기 등이 위협받았기 때문이다.

고난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내담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어떠한 기대와 동기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진 하나님의 이미지, 기대, 동기가 잘못된 것이라면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러한 수정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때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의미가 바뀐다.

실제 상담 장면에서 부모의 학대로 인해 우울증을 겪은 내담자가 있었다. 성인이 되어 부모를 용서할 수 있었지만,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 원망과 분노를 갖고 있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원망하는 밑 마음에 ‘나는 피해자로 누군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신념과 보상의 동기를 갖고 있었다. 그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신념과 동기를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고 새로운 삶의 비전을 갖게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중,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으나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전자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 후자의 경우는 욥을 꼽을 수 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했으며(출 15:25; 출 16:2-3; 출 17:3; 출 32:1-6; 민 11:1, 4; 민 13:25-

14:3; 민 16:1-3),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분노에 징계하셨다 (출 32:26-34; 민 11:1-2; 민 11:33; 민 14:11-27; 민 16:31-35).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태도로 자신들이 바라는 삶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의 분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표현으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를 불렀다.

이에 반해,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욥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갔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욥 38:2-7).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이 당한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자신이 이 세상의 창조주임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을 만난 욥은 욥기 42장에서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2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 하나이다(6절)” 고백하였다.

Keller(2018)는 이러한 욥의 행동을 자기변명 프로젝트의 폐기라고 설명하면서 자신이 의롭고 떳떳함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일의 앞 뒤 사정을 설명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을 지지해주어야 한다는 요구를 철회했다고 보았다. Carson(2017)은 이러한 욥의 회개를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킨 자신의 교만함에 대한 회개였으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 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답변을 요구했던 태도를 회개한 것이라고 보았다. 분명 욥에게 일어난 고난은 욥의 죄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욥 1: 9-11). 그런데도 욥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욥 2:10) 인정하는 가운데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였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삼상 16:7)은 그의 부르짖음을 징계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고 의

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분 안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렘 29:12) 말씀하신다. 예레미야 29장 12-13절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12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13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자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분노하는 자들에게 주님 안에서 몸부림칠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도록 도와야 한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담자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그들은 고난에 대한 의미가 해석되고 그것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

III. 닫는 글

본 논문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 이견을 보이는 기독교 심리학자 Cosgrove, 목회 상담학자 Lester, 성경적 상담학자 Jones과 Powlison의 입장을 기술하고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기독교 상담자들이 하나님께 분노하는 내담자들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각 이론가들이 분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 대한 시각이 달랐으며, 이에 따라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에 관한 이견이 존재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의 의견이 나뉘질 수밖에 없는 배경에 초점을 두었고, 4명 학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내담자들을 돕기 위해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인간과 고난의 재구성에 관한 주제를 도출하였다.

인간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할 수 없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한다. 인간이 고난 중에 느끼는 다

양한 부정적 감정은 죄인인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접근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때로는 그들의 분노 속에 죄 된 모습이 있을 것이다. 기독교 상담자는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서 분노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애痛的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단순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들이 고난에 대해 새롭게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고난이라는 위기는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본 질문을 던지는 기회가 된다. 이 질문에 대한 내담자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념, 가치와,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령 고난이 주는 의미를 당장 알 수 없더라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왔던 자신의 신념과 동기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

저자는 본 연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죄 된 행동인가 아닌가의 구분보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으로서 내담자를 바라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다만 상담자는 내담자의 분노를 처리함에 있어 화나고 답답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토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애痛’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신앙 여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으로 인식시키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내담자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 상담 내에서 이견을 보였던 4명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기에 분노의 감

정과 과정을 다양하게 바라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분노는 인간에게 있어 기초적인 감정이면서 다양한 속성을 가진 복잡한 감정이다. 또한 분노는 학자들 간에 다양한 정의와 개념을 갖고 있으며 생리학적 관점, 사회구성원적 관점, 정신분석학적 관점, 인지-정서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다(오윤선, 2010; 조숙, 2014). 특히, 뇌 과학의 발달로 감정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문제를 신학적이고 일반적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서 인간의 신경 생리적·사회 심리적 요소들을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내담자의 사례연구를 제안한다.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내담자가 갖고 있는 고통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고통에 대한 내담자의 대처와 신앙의 기여를 분석하여, 그들의 분노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실질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 김규보 (2019).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그리스도 닮음의 실천적 함의. *성경과 신학*, **90**, 99-139.
- 김영희 (2010). 고난 속 고통에 대한 목회상담적 접근: 고통을 통한 인생의 의미. *복음과 상담*, **14**, 218-239.
- 김준수 (2012). 인간 동기의 심리학적 이론과 성경적 이해. *복음과 상담*, **18**, 106-130.
- 류창현 (2009). *최신분노치료: 문제해결중심 및 심리사회대인관계기술훈련*. 파주: 교육과학사.
- 박경하 (2008). *하나님을 용서하라*. 대구: 디자인셋.
- 심정연 (2019). 하나님을 향한 분노 안의 자기중심성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고찰: 요나서 4장의 내러티브 분석을 기반으로. *신학과 실천*, **63**, 331-357.
- 오윤선 (2010). 청소년 분노조절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 *복음과 상담*, **14**, 9-34.
- 이관직 (2016). *성경으로 본 기독교상담*. 구리: 지혜와 사랑.
- 장동진 (2018). 기독교상담에서 죄의 문제 다루기: 애도(mournong)를 통한 이해. *복음과 상담*, **26**, 185-219.
- 정정숙 (2002). *기독교상담학*. 서울: 베다니.
- 조 숙 (2014). *분노와 정서조절*. 서울: 창지사.
- Allender, D. & Longman III, T. (2011). *감정, 영혼의 외침*(안정임 역, *The Cry of The Soul*). 서울: IVP. (원전 1994 출판).
- Beck, R. (2007). The winter experience of faith: Empirical, theologic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26**, 68-78.
- Carson, D. A. (2017). *위로의 하나님*(한동수 역, *How Long, O, Lord? Reflections on Suffering and Evil*). 서울: CLC. (원전 2006년 출판)
- Cosgrove, M. P. (1995). *분노와 적대감*(김만풍 역, *Counseling for Anger*). 서울: 두란노. (원전 1988 출판).
- Exline, J. J., Yali A. M., & Lobel M. (1999). When god disappoints: Difficulty forgiving god and it's role in negative emotio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4, 365–379.

- Exline, J. J., & Martin, A. (2005). Anger toward god: A new frontier in forgiveness research. In Worthington Jr. E. L (Ed). *Handbook of Forgiveness* (pp. 73–88). New York : Hove.
- Exline, J. J. Park, C. L, Smyth, J. M., & Carey, M. P. (2011). Anger toward god; Social–cognitive predictors, prevalence, and links with adjustment to bereavement and canc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 129–148.
- Hoekma, A. A. (1990). 개혁주의 인간론(류호준 역, *Created in God's images*).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원전 1986년 출판).
- Jones, R. D. (1996). Anger against god.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4(3), 15–20.
- Keller, Timothy. (2018).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최종훈 역, *Wal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 서울: 두란노. (원전 2013 출판).
- Lee, J. K., & Cho, I. H. (2016). Resolving spiritual struggle of anger toward god: Christian counseling Approaches.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24, 201–229.
- Lester, A. D. (1983). *Coping with your anger: A christian guid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 Lester, A. D. (2006). Why hast thou forsaken me! Anger at god. *Journal of Pastoral Theology*, 16(1), 53–70.
- Lester, A. D. (2016). 앵그린 크리스천(이희철, 허영자 공역, *The Angry Christian*). 부천: 돌봄. (원전 2003년 출판)
- McMinn M. R. (2011). 죄와 은혜의 기독교상담학(전요섭, 박성은 공역, *Sin and Grace in Christian Counseling*). 서울: CLC. (원전 2008년 출판).
- Pargament, K. I., Koenig, H. G., Tarakeshwar, N. & Hahn, J. (2001). Religious struggle as a predictor of mortality among medically ill elderly patients: a 2–year longitudinal study.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61, 1881–1885.
- Pargament, K. I., Zinnbauer, B. J., Scott, A. B., Butter, E. M., Zerowin, J., & Stanik, P. (2003). Red flags and religious coping: identifying some religious warning signs among people in crisi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9, 1335–1348.

- Pink, A. (2015). *산상수훈 강해*(지상우 역, *Exposition of The Sermon on The Mount*). 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원전 2008 출판)
- Powlison, D. (2016a). Anger at god.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30(2), 42-54.
- Powlison, D. (2016b). *선한 분노 악한 분노*(김태형, 장혜원 역, *Good & Angry*). 서울: 토기장이. (원전 2011년 출판).
- Tripp, P. D. (2019). *고난*(조계관 역, *Suffering: Gospel Hope When Life Doesn't Make Sense*). 서울: 생명의말씀사. (원전 2018년 출판)
- Welch, E. T. (2003). Motives: Why do I do the things I do?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2(1), 48-56.
- Powlison, D. (2016c, December 12). Helping those who are angry with god. CCEF. Retrieved August 21, 2020, from <https://www.ccef.org/resources/blog/helping-angry-god>

【 Abstract 】

A Study of Christian Counseling on Anger Toward God

Han, Hyun Hee

Hessed Counseling Center

For Christians in suffering, anger toward God is often a phenomenon that is found, but it is difficult to express angry. That is because it appears to be faithless or spiritually immature. However, when anger toward God is unresolved, it affects a person physically, psychologically, and spiritually. In particular,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is important in the Christian tradition. Unless the anger toward God is resolved, it is difficult to achieve true communication with God.

But there is a disagreement in view of anger toward God in Christian Counseling. This paper deals with different opinions on anger toward God in Mark P. Cosgrove, Andrew D. Lester, Robert D. Jones, and David Powlison, and describes and compares their opinions to see how Christian counselors should care for angry clients.

Based on the opinions of scholars, “human as a sinner” and “reframing of suffering” were derived as important topics that Christian counselors should consider. A Counselor should help the anger of a sinner client to be expressed with mourning. In addition, a counselor needs to help a client put down the beliefs and motivations that are more important than God in order to reframe the meaning of suffering. Lastly, it is described the limitations of this discussion and suggested case studies for specific application.

Key words: anger, anger toward God, sinner, suffering, Christian counseling